

중기·자영업자 58조 수혈... '코로나 도산' 막는다

정부 2차 비상경제회의 중시안정펀드 10.7조 투입 단기자금시장에 7조 지원 지원 대상 대기업까지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불안감을 겪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100조원에 달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 원+α를 발표한 것에 이어 2차 회의에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100조원+α로 늘

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당초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규모는 총 58조원이다.

1차 회의에서 발표한 29조원에 더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 금융기관을 총동원해 29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채권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해 총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은위원장의 설명이다.

당장 이날 오후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

차 캐피탈콜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지난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CBO 6조7000억원을 신속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회사채 차관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산은 등 정책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조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프라이머리 CBO 지원 규모를 제외해도 24조1000억원이 된다. 회사채에 프라이머리 CBO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1, 2차를 합치면 30조 8000억원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자금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해 총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5대 금융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개별 주식어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한다는 구상이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로,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609.97 (+127.51) ↓ 금리(국고채 3년) 1.13 (-0.03)
- ↑ 코스닥 480.40 (+36.64) ↓ 환율(USD) 1249.60 (-16.90)

아시아나, 15일 무급휴직·임원 급여 60% 반납

코로나19 여파 3차 자구책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무급휴직을 늘려 절반의 인력만 운용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 특단의 자구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4월부터 모든 직원들은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임원들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한다.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보유) 운항승무원들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국제 여객 노선이 85% 상당 축소되고, 4월 예약율도 전년 대비 90% 수준에 불과, 최소 70% 이상 유류 인력이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원 일괄사표 제출,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조치를 한 것에 이어 이달에는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률을 확대(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한 바 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임대료 인하 잇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임점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웃렛 수완점은 지역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임점업체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판매 부진과 재고 부담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파트너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신가동 농협 광주유통센터도 임점업체 임대료 인하 방침이다.

블랙야크는 이번 기획전에 역대 최대 물량을 1500억원 상당 상품을 내놓아 재고 소진에 나섰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브랜드 100여 종 상품을 7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아웃렛 수완점은 다음달까지 식음료 임점업체 20곳에 대해 5%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수완점은 지난 달 코로나19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아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정운성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판매 부진과 재고 부담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파트너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신가동 농협 광주유통센터도 임점업체 임대료 인하 방침이다. 블랙야크는 이번 기획전에 역대 최대 물량을 1500억원 상당 상품을 내놓아 재고 소진에 나섰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브랜드 100여 종 상품을 7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 수출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수출기업의 FTA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는 수출 예정인 물품이나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요청을 하기 전에 FTA협정상 한국산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것이다.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제공은 실제 FTA 사후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으로 우선 심사·안내한다. 이후 코로나19가 종결되면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품목분류 적정성 및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전준비 사항 및 대응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최근 터키·EU회원국으로부터 서류의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국가로 수출하는 업체가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관주세관의 설명이다.

김광호 세관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 네번째)은 24일 광주동구청에서 긴급구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 함께 이겨내자"... 광주은행, 긴급구호물품 700상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4일 마스크·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물품 700 상자를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식료품 등 19종으로 구성된 구호물품은 송 은행장과 이석욱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 30여 명이 마련했다.

이들은 "정성이 듬뿍 담긴 사랑의 꾸러

미'로 이름을 붙이고 700 상자를 직접 만 들었다.

이중 500개는 광주 5개 구를 통해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며, 200개는 선별진료소를 펼치고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광주 시립요양병원 진료소 의료진에 전해진다.

송 은행장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

을 한데 모아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한 '정성이 듬뿍 담긴 사랑의 꾸러미'가 도움이 절실한 우리 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융위, 재기 노리는 중기 2~5%대 신용대출

정부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5%대 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등은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1일부터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

생절차 대형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공단과 한국사산관리공사는 3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동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경기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은 4년 연속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925건이었던 회생신청은 2016년 936건, 2017년 878건, 2018년 980건, 2019년 1100건으로 4년 새 18.9%(175건)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재기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재도전종합지원센터(광주 062-600-3024·전남 061-280-8033)로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